**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2A 강의 – 마태복음 1장: 예수의 탄생**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2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매튜의 소개 강의인 1A 강의와 1B 강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배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8~9쪽에 있는 보충 강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이번 강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칭호들과 거기에 함축된 기독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는 분명히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의 최고의 역할과 직분을 나타내는 칭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성구 사전을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인 크리스토스와 히브리어 단어인 모시아흐는 모두 하나님의 승인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직분을 맡기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사무엘상 9장과 16장, 역대상 29장. 구약의 일부 구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하 1장 14절, 시편 22편, 다니엘 9장 24절 등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되새기면서 메시아에 대한 추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메시아적 소망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정당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갈망과 그 결과로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을 구약의 역사적 패턴과 종말론적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핵심 칭호입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아들을 메시아와 연결 지을 때, 예수님의 독특한 지위는 더욱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로 자주 사용됩니다. 성구 색인을 사용하여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1-16절, 소위 다윗 언약, 시편 91편과 같은 구약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탁월한 지위를 가진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긴밀한 관계는 요한과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단절하신 것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3장 9절과 8장 11절). 마태가 이방인을 강조한 것은 아마도 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제목에 메시아, 다윗, 아브라함을 언급한 후, 그의 족보에서 교차대법(chiastic pattern)을 사용하여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족보의 구조는 1장 17절의 요약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 그리고 유배부터 메시아까지 14대를 추적합니다. 현대 독자들은 족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시작하는 데 지루하고 무의미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1장 1절에서 확증하는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야 하며, 족보는 이러한 연결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1장 17절과 누가복음 3장 23-37절을 비교해 보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가계도에 대한 완전하고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진정한 역사적 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주로 신학적인 것이지 연대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9페이지의 두 도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족보의 세 부분은 다윗 왕과 바빌론 유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유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바빌론 유배보다 훨씬 더 비참한 유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는 족보에서 다윗이 열네 번째 이름이고, 히브리어로 다윗의 숫자가 열네이므로, 족보를 구성하는 데 열네 세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가 사용한 이 숫자 전략, 즉 게마트리아는 예수님의 배경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대한 다윗에게는 더 큰 아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열네 세대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 성취와 연결시킵니다.

다윗부터 포로기까지의 열네 세대에 걸쳐 마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스라엘이 쇠퇴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부터 메시아까지 열네 세대에 걸쳐 마태는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을 추적합니다. 브루너의 『그리스도의 책』은 족보를 대문자 N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제안을 하며, 이는 9페이지 도표의 기초가 됩니다.

족보의 세 가지 쟁점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합니다. 첫째, 14라는 숫자의 문제, 둘째, 마태가 족보에 여성들을 포함시킨 이유, 셋째,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관계입니다. 보충 자료 9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는 14라는 숫자 사용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소위 14세대라고 불리는 두 번째 집단만이 실제로 14세대를 구성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실제로 13세대를 구성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확장하면 열네 개의 이름을 세 세트로 묶은 것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들 중 어떤 것도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보면 어떤 해설이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롬버그는 고대 문학 관습에서 종종 첫 번째와 세 번째 세트를 포함하는 표현과 두 번째 세트를 포함하는 표현을 번갈아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3번째와 14번째 사이의 변화는 이해할 만합니다. 본문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사본상에서는 누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건드리는 세 번째 세트에서 마태가 요셉과 마리아를 별개의 세대로 간주한다고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는 1 장 16절의 문학적 패턴을 깨뜨리고 요셉이 예수를 세대로 간주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다른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카슨은 그의 주석 68쪽에서 훌륭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의 복음서의 상징적 가치는 그 정확한 배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태는 분명 현대 학자들만큼 산수에 능통했지만, 마태의 문학적 관습은 고대의 것이지 현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 기준으로 볼 때, 마태의 선형 계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입니다.

마태는 역대상 3장 10-14절에 나오는 솔로몬과 요시야 사이의 세 이름을 생략했으며, 다른 생략된 부분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족보에서 14번째 이름이라는 사실과, 다윗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적 가치인 14의 상징적 의미, 즉 히브리어로 달렛 4에 바브 6을 더하고 달렛 다윗 6을 더하면 14가 된다는 사실은 이 족보의 인위성을 설명합니다.

이제 족보 속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족보에서 언급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족보는 대개 부계, 즉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여성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는 창세기 11장 29절, 22장 20-24절, 35장 22-26절, 그리고 역대상 2장과 7장을 참조하십시오. 여성들의 등장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어떤 것도 완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던 전형적인 죄인으로 여성들을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동방박사,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슷한 견해로, 이 모든 여성들이 추문적인 성관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다말과 특히 라합은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룻과 밧세바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기록은 그녀를 다윗의 공격에 수동적인 희생자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룻기 3장 13-19절에서 룻이 보아스와 밤에 접촉하는 장면은 자극적인 유혹 장면이 아니라, 구약의 친족-무리자에 대한 율법에 명시된 친족과의 결혼 청혼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마태가 이 여성들을 마리아와 함께 언급한 의도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덕망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 여성들을 마리아와 대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이 모든 여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주장으로,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 마태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본문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으며,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처럼 헷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하여, 유대 전통은 일반적으로 이 여성들을 덕망 있는 개종자로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방인 출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 여성들을 마태가 강조한 이방인 선교의 더 나은 전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을 마리아와 연관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마태는 이 여성들을 마리아의 전형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마태가 이 네 명의 주목할 만하고 심지어 악명 높은 여성들을 자신의 족보에 포함시킨 이유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견해의 특정 요소들은 타당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에 이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마태가 나중에 복음의 보편적 세계 선교를 강조하고 참된 경건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남자를 넘어 여자에게, 독선적인 자를 넘어 죄인에게까지 미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인종이나 성별, 심지어 과거의 스캔들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또 다른 논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족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조상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다소 인위적으로 추적하는 반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이 모든 것을 더욱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명이 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 이전 세대 21대와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의 14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소위 14대보다 한 대 더 많습니다. 다윗과 스알디엘 사이의 경우, 누가복음에는 21대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15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에서 예수님까지, 누가는 20대, 마태는 12대입니다. 족보의 구문은 마태가 "A는 B의 아버지였다"라는 형식을 따르는 반면, 누가는 "A는 B의 아들이었다"라는 관계의 소유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맥락도 다릅니다. 마태는 자신의 족보를 복음서 서두에 배치하는 반면, 누가는 자신의 족보를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이야기 사이에 끼어 놓습니다.

마태복음의 3대 x 14대 구조는 그의 족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누가복음의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11대 x 7대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족보를 종이에 나란히 나열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수렴과 발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발산이 수렴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과 예수 사이에 56세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12세대만이 마태복음의 42세대와 수렴합니다.

수렴은 왕정 이전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발산이 나타납니다. 이제 역사성 문제에 대해 간략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계보 모두 각각의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비교 분석할 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이나 다른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족보에 언급됩니다. 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신학적 관점이 주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서의 역사적 정확성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족보의 역사성을 폄하하고,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족보를 역사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신학적 구성물로 간주합니다. 물론, 사실에 의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신앙을 선포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크레이그 블롬버그처럼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의 저서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결국 해석자의 전반적인 신학적 관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족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난제를 해결할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성경 기록을 위조할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족보 모두 마태와 누가가 선의로 전수했던 전승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족보를 작성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예수의 생물학적 계보를 완벽하게 요약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어려움과 각기 다른 목적들을 제쳐두더라도, 마태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기적적인 잉태를 확증합니다. 또 다른 신학적 관심 영역은 각 족보가 문학적 맥락에서 갖는 각각의 목적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주로 밝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여인들의 등장은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선교를 전하려는 마태의 의도를 암시합니다. 이제 1장 12-17절의 족보 문제를 넘어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사야 7장 14절 인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8-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구절의 핵심은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유대 왕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의 공격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 위협적인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에 대한 표징을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아하스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표징을 주십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세 가지 주요 해석적 접근 방식을 낳았는데, 이는 유형론적, 예언적, 그리고 다중적 성취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유형론적 관점은 아하스에게 주어진 표징(7:14a, 16)의 직접성과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가능성을 구약 시대 문맥상 가까운 미래에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8장 3절과 4절, 8절, 10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은 아하스에게 주어진 표징으로, 그의 시대에 성취되었으며, 마태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절정에 달하는 성취를 이루는 역사적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한 젊은 여인이 다윗 가문의 아하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되는 중요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이사야 7장 2절과 13절).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태 시대의 한 젊은 여인이 문자 그대로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온 세상 열방에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마태 시대에, 그 아들은 바로 그 자신,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 즉 예언적 관점은 이사야 7장 14절을 문자 그대로 처녀였던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는 이 예언적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탄생, 오직 예수님만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아하스 왕이 직면한 당대의 어려움을 초월하여 미래에 있을 징조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의 압도적인 의미는 시간적 의미를 초월합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형론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젊은 여인에게서 정상적인 아들을 낳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서 거의 또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언적 관점만이 아들의 이름인 임마누엘에 걸맞은 가치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모형론적 관점의 강점은 원래 예언의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예언적 관점의 강점은 신약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인 다중 성취는 이 두 가지 강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의 부분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절정적인 성취까지 예견합니다. 인간 예언자 이사야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예언은 주님의 것이고 이사야는 단지 사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인간 저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신성한 저자가 의도한 바는 '완벽한 ' 또는 '더 완전한 의미'였습니다.

각 입장에는 신뢰할 만한 지지자와 주장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론적 관점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직접 조사해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이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마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사야 7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미드라쉬나 이사야 7장에 대한 상상적인 해설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도적인 예언으로 영감받은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사야 7장에서 신탁의 모티프, 특히 다윗 가문에 대한 강조점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7장 2절과 13절.

이사야 9:7. 어린 소녀가 아들을 낳는 모습. 7:14-16; 8:3, 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모습. 이는 7:14, 8:8, 8:10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메시아의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사야의 주제들과 함께, 마태가 4장 15절과 16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과 같은 다음 문맥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구체적인 미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인용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의 이러한 모티프는 마태가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견하고 뒷받침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가문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큰 표징이 되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왕국을 전파하며 받아들이거나 거부당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다루기 힘든 범죄자들을 엄숙하게 다룰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8장 23절부터 27절, 10장 25절, 40절, 17장 17절, 그리고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친형제, 어쩌면 자신의 동생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주제는 복음서를 마무리하며, 이 주제로 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포괄성을 형성합니다 .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방식에 내포된 모든 복잡성은 이 논의의 다음 주제인 마태의 성취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은 신약 성경에 '성취'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구약의 특정 예언이 신약 성경의 특정 사건에서 성취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취'라는 용어가 사용된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사실, 때로는 성취가 구약의 윤리와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의 정직하심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제가 방금 주장했듯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적 패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취되는 예언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적인 개념 외에도 역사적,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같은 구절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의를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3장 32절의 매우 심각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 당시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역사적 패턴은,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은 517절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들만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언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정직함을 성취하실 분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성경에 사용된 구절들을 몇 페이지 전에 추가 자료에 제시해 드렸는데, 이 목록에서도 13개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가 표시된 구절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총 13개인데, 마태복음의 서사적 해설에 10개, 예수님의 말씀에 3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구약의 성취를 언급합니다. 이 열 가지 중 네 가지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유아기 이야기에 나옵니다.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미래의 동정녀 탄생 메시아에 대한 엄밀한 예언이 아니라 모형적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호세아 11장 1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역시 모형론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집트 여행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이라는 역사적 패턴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은 바빌론 유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은 자식들을 위해 울부짖는 라헬로 의인화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의미심장한 죽은 자식들을 위한 울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은 구체적인 예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외딴 마을로 이주하심으로써 복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정확히 어떤 구약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었는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가 염두에 두었던 역사적 패턴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취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른 구절로는 마태복음 4장 14절(이사야 9장 1절과 2절 인용), 마태복음 8장 17절(이사야 53장 4절 인용), 마태복음 12장 17절(이사야 42장 1-4절 인용), 마태복음 13장 35절(시편 78장 2절 인용), 마태복음 21장 4절(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조합하여 인용), 마태복음 27장 9절(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의 성취를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러한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3-15절은 예레미야 5장 21절과 이사야 6장 9-10절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신 다른 두 구절은 같은 문맥에서 마태복음 26장 54-56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성취에 대한 암시일 것이지만, 거기에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을 직접 살펴보시면 분명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취 이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자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약의 성취는 단순히 예측적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 역사적, 그리고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겹칩니다.

개별적인 성취는 세 가지 요소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윤리적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3장 15절과 5장 17절이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가 주된데,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21장 4절, 26장 54절, 56절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성취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아마도 1장 22절, 2장 15절, 17절, 23절, 13장 14절, 35절, 23장 32절, 27장 9절과 같은 역사적 패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구속사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조차도 구약에 그들의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사건들을 되풀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족보에 암시되어 있듯이, 구약의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대한 강의를 이 장의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복음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도 자명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시작하여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을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에 대한 서론은 요한복음의 여러 주제의 기조를 형성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기와 초기 생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내용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기원 이야기는 1장 1절의 칭호와 1장 2-17절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는 1장 18-25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를 이어가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보여줍니다. 마태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마태는 신비로운 동방박사들의 도착, 예수님의 이집트 체류, 그리고 나사렛으로의 귀환을 둘러싼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셨는지 보여줍니다. 이 독특한 마태복음의 내용은 요한의 사역(3장 1-12절), 예수님의 세례(3장 13-17절),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4장 1-11절)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4장 12절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 시작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구약 성경 성취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과 같은 중요한 마태복음의 주제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으로 데이비드 터너 박사의 마태복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2A가 끝났습니다.